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에 대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권애란¹, 이형기^{2*}

¹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박사, ²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Social Exclu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Aeran Kwon¹, Hyeongki Lee^{2*}

¹Doctor, Dept. of Finance and Insurance, Mokpo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Finance and Insurance,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도출된 사회적 배제 정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1,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이다. 종속변수는 삶의 질 그리고 조절변수는 직무만족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 고용상태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에 조절효과가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사회활동으로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는 선진국의 장애인고용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시행 배경, 시행내용, 성과, 한계 등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악순환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삶의 질, 직무만족, 사회적 배제, 경제활동, 장애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quantify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of the disabled and verify the impact of the derived degree of social exclus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And the purpose is to verify whether job satisfaction moderates the impact of social exclusion and quality of life of disabled peopl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280 people extracted through a panel survey on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social exclusion are economic difficulties, employment status, mental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The dependent variable was quality of life, and the control variable was job satisfac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factors of social exclusion that affect quality of life were economic difficulties, mental health,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employment status. Second, job satisfaction showe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 sub-factors of social exclusion tha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quality of life were identified as economic difficulties, employment status, and social activities. In follow-up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employment programs for the disabled in developed countries and analyze the implementation background, implementation detail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It is hoped that through this research, the vicious cycle of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will be improved and an opportunity will be provi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Key Words : Quality of Life, Job Satisfaction, Social Exclusion, Economic Activity, Disabled People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 이형기(hkkobe1140@mkpo.ac.kr)

접수일 2023년 12월 16일 수정일 2024년 01월 22일 심사완료일 2024년 01월 27일

1. 서론

한국사회의 소수집단 중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배제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교육 수준, 고용, 주거환경, 건강 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은 배제되고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1-4].

장애인 배제와 차별은 삶의 행복과 만족에 관련이 있다. 장애인은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평가[5]라고 할 수 있는 생활 만족도와 자기 자신이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6,7]인 자아존중감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8]. 따라서 장애인 배제와 차별에 관한 연구는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둘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의 불평등과 제한이 경제활동이나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환경적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경제활동에서의 초점은 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9-11]. 고용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들로 확대되었고[12,13],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활동범위도 확대되면서 다른 사회활동과 관계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14]. 이에 사회적 배제와의 삶의 질 관계 속에서 고용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삶을 구성하는 객관적 조건이 주관적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15]. 그러므로 삶의 질은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은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생활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여부, 교육 수준, 만성질환 유무, 인터넷 사용 여부, 주거환경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데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지표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배제가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8].

지금까지 장애인의 삶의 질은 취업, 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행동 및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제언들이 제기되어왔다. 이렇듯 삶의 질은 장애인의 주관적인 경제활동의 수준, 자신의 능력, 가치 등에 대한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편적으로 변수 수준의 관계만을 파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회적 배제 전반에 대한 삶의 질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면서 사회적 배제 실태에 대한 파악과 수량적 측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들조차도 대표적 사회적 배제의 특성, 가령,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배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다차원성(multi-dimensional),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제가 발생한다는 관계성(relativity), 배제된 결과뿐만 아니라 배제되는 과정을 고려하는 역동성(dynamics)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측정,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8].

장애인은 사회에서 누려야 할 삶에 대해 상대적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인 다차원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 사회와 국가 등이 장애에 대한 은폐와 보호가 장애인을 주류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회변화에 따른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등이 상호작용하여 장애인의 배제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1]. 이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결핍과 노동, 교육 등에서 발생하는 배제가 복잡한 인과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진입을 배제시키는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장애인 내에서도 여성,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다른 차별적 요소가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16].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고용의 차별과 경제활동 축진을 제한하여 장애인의 삶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 및 배제를 경험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정도(수준)를 측정하고,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특성이 동시적으로 고려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도출된 사회적 배제 정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른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를 갖는다.

2. 연구 방법

2.1 자료 수집 및 대상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원시자료인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를 선정하여 다운로드 후에 사용하였다.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는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2차 웨이브 통합 조사표(1~6차 조사)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2차 웨이브 구축 당시 구성된 패널로서 2016년 5월 15일 기준 만 15세부터 64세 장애인이 대상이며, 6차년도(2021) 패널의 연령은 만 20세부터 69세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은 전체 4,577명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층화표집한 후에 무응답 등을 제거하여 성별, 연령, 최종학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 지난 1년간 취업 여부,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 참여, 직무만족, 삶의 질의 조사표를 표본으로 추출된 1,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1,2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978(76.4)
	female	302(23.6)
Age (years)	15-29	134(10.5)
	30-39	268(20.9)
	40-49	435(34.0)
	50-59	300(23.4)
	≥60	143(11.2)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or lower	162(12.7)
	high school graduate	580(45.3)
	College graduate or higher	538(42.0)

2.2 조사 도구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의 조사 도구는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8],[14],[17-23] 등이 고용 패널조사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중심으로 사용한 재정, 고용, 건강, 사회참여 활동,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인 재정은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 건강은 정신적 건강, 사회참여 활동은 사회활동 참여로 선정하였다. 단, 고용상태인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은 역변환하였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조사 도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고용 패널조사 2차 웨이브 통합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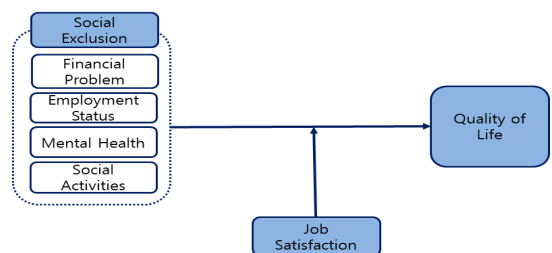
(1~6차 조사)의 삶의 질에서 경제활동에 관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15]는 삶의 질의 구성요건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은 삶의 질의 조사도구를 경제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설문문항에서 추출하였고, 경제활동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고용 패널조사의 삶의 질에서 추출된 조사도구 명칭을 그대로 삶의 질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삶의 질은 가족들과의 관계, 살고 있는 곳,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하고 있는 일 등으로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된 6개 문항별 만족도로 구성하였고, 척도는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으로 하였다.

조절변수인 직무만족의 조사도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고용 패널조사 2차 웨이브 통합 조사표(1~6차 조사)와 [24]가 사용한 직무만족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직무만족은 임금, 취업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등으로 1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였다.

2.3 연구 모형 및 가설

독립변수는 사회적 배제로서 경제적 어려움(재정배제), 지난 1년간 경제활동(고용배제), 정신적 건강(건강배제), 사회활동 참여(사회활동 참여 배제)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삶의 질로 구성하였다. 조절변수는 직무만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Fig. 1] Model of Research

이러한 모형을 통하여 장애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의 배제를 직무만족의 축진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장애인 내에서도 이중적 또는 다중적인 차별적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직무만족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가설 3. 직무만족은 장애인의 고용상태와 삶의 질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가설 4. 직무만족은 장애인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가설 5. 직무만족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2.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IBM사의 SPSS ver. 21.0으로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 3단계 조절회귀분석으로 자료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를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적 배제(재정, 고용, 건강,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직무만족이 삶의 질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조절회귀분석을 하였다.

2.5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Table 2〉와 같이 집중경향치와 분산도의 대표적인 값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N=1,280)

Variables	M±SD
Quality of life	3.568±.491
Financial problem	1.971±.765
Employment status	1.963±.163
Mental health	3.385±.712
Social activities	1.128±.160
Job satisfaction	3.396±.524

3. 실증 분석

3.1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

가설 1을 규명한 〈Table 3〉의 회귀모형 설명력 R^2 는 .092(수정된 R^2 =.089)로 나타났고, 공차는 0.1이상으로

제시되어 다중공선성이 없어 회귀식이 성립되었다.

〈Table 3〉과 같이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표준화 계수(β)가 $-.179(t=-6.526, p=.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고용상태는 표준화 계수(β)가 $.061(t=2.268, p=.024)$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은 표준화 계수(β)가 $-.144(t=-5.245, p=.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회활동은 표준화 계수(β)가 $.128(t=4.751, p=.00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높은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 고용상태로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and quality of life

Variables	β	t	p	tolerance
(Constant)		17.068	.000	
Financial problem	-.179	-6.526	.000	.946
Employment status	.061	2.268	.024	.996
Mental health	-.144	-5.245	.000	.951
Social activities	.128	4.751	.000	.987
R^2 (adj. R^2)	.092(.089)			
F(p)	32.236(.000)			
Durbin-Watson	1.508			

3.2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3.2.1 경제적 어려움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분석

가설 2를 검증한 〈Table 4〉와 같다.

검증 결과는 회귀모형 유의성에서 모형1, 모형2, 모형3의 설명력(R^2)이 단계적으로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a \times b$)이 유의($p < .05$)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의 관계를 직무만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의 직무만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면, 모형1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은 음(-)의 효과가 나타났고, 모형2에서 직무만족과 삶의 질은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항이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관계를 약화시키는 완화효과(buffering effect)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Table 4〉 Results of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of economic difficulties and quality of life

Model	β	t	p	Valence	
1	(Constant)	266.929	.000	$R^2 = .050$ $\Delta F = 67.711$ $p = .000$	
	Financial problem(A)	-.224	-8.229		.000
2	(Constant)	296.748	.000	$R^2 = .232$ $\Delta F = 302.504$ $p = .000$	
	Financial problem(A)	-.156	-6.298		.000
	Job satisfaction(B)	.432	17.393	.000	
3	(Constant)	294.190	.000	$R^2 = .236$ $\Delta F = 7.105$ $p = .008$	
	Financial problem(A)	-.156	-6.297		.000
	Job satisfaction(B)	.435	17.528		.000
	Interaction term (A×B)	.065	2.666	.008	

Dependent variable: Quality of life

3.2.2 고용상태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분석

가설 3을 검증한 〈Table 5〉와 같다.

검증 결과는 회귀모형 유의성에서 모형1, 모형2, 모형3의 설명력(R^2)이 단계적으로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 상호 작용항(a×b)이 유의($p < .05$)하여 고용상태와 삶의 질의 관계를 직무만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의 직무만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면, 모형1에서 고용상태와 삶의 질은 정(+)의 효과가 나타났고, 모형2에서 직무만족과 경제활동은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항이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of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quality of life

Model	β	t	p	Valence	
1	(Constant)	260.826	.000	$R^2 = .005$ $\Delta F = 6.814$ $p = .009$	
	Employment status(A)	.073	2.610		.009
2	(Constant)	292.681	.000	$R^2 = .211$ $\Delta F = 332.288$ $p = .000$	
	Employment status(A)	.048	1.947		.052
	Job satisfaction(B)	.454	18.229	.000	
3	(Constant)	292.893	.000	$R^2 = .216$ $\Delta F = 7.952$ $p = .005$	
	Employment status(A)	.065	2.562		.011
	Job satisfaction(B)	.453	18.248		.000
	Interaction term (A×B)	.072	2.820	.005	

Dependent variable: Quality of life

즉, 직무만족이 고용상태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를 향상시키는 강화효과(enhancing effect)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증가할수록 고용상태에 따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2.3 정신적 건강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분석

가설 4를 검증한 〈Table 6〉과 같다.

검증 결과는 회귀모형 유의성에서 모형1, 모형2, 모형3의 설명력(R^2)이 단계적으로 증가하지 못하였고,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a×b)이 유의($p < .05$)하지 않아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의 관계를 직무만족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Model	β	t	p	Valence	
1	(Constant)	264.962	.000	$R^2 = .036$ $\Delta F = 47.907$ $p = .000$	
	Mental health(A)	-.190	-6.921		.000
2	(Constant)	295.123	.000	$R^2 = .224$ $\Delta F = 308.552$ $p = .000$	
	Mental health(A)	-.125	-5.026		.000
	Job satisfaction(B)	.438	17.566	.000	
3	(Constant)	292.430	.000	$R^2 = .224$ $\Delta F = .018$ $p = .894$	
	Mental health(A)	-.125	-5.026		.000
	Job satisfaction(B)	.438	17.558		.000
	Interaction term (A×B)	.003	.133	.894	

Dependent variable: Quality of life

3.2.4 사회활동 참여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분석

가설 5를 검증한 〈Table 7〉과 같다.

검증 결과는 회귀모형 유의성에서 모형1, 모형2, 모형3의 설명력(R^2)이 단계적으로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a×b)이 유의($p < .05$)하여 사회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를 직무만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의 직무만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면, 모형1에서 사회활동과 삶의 질은 정(+)의 효과가 나타났고, 모형2에서 직무만족과 삶의 질은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모형3에서는 상호작용항이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이 사회활동과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서 반대의 효과를 발생하는 대립효과(interference effect)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증가할수록 사회활동에 따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Table 7〉 Results of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Model	β	t	p	Valence	
1	(Constant)	263.366	.000	$\beta^2 = .025$ $\Delta F = 32.139$ $p = .000$	
	Social activities [Ⓐ]	.157	5.669		.000
2	(Constant)	293.971	.000	$\beta^2 = .218$ $\Delta F = 315.263$ $p = .000$	
	Social activities [Ⓐ]	.097	3.901		.000
	Job satisfaction [Ⓑ]	.443	17.756		.000
3	(Constant)	293.261	.000	$\beta^2 = .224$ $\Delta F = 10.798$ $p = .001$	
	Social activities [Ⓐ]	.110	4.362		.000
	Job satisfaction [Ⓑ]	.449	18.015		.000
	Interaction term [Ⓐ] × [Ⓑ]	-.082	-3.286		.001

Dependent variable: Quality of life

4. 결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높은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 고용상태로 나타났다. [25]의 연구에서도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지위, 건강 상태가 삶의 만족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배제는 높아지고, 삶의 만족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건강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고용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를 규명할 때에는 직무만족에 대한 심리적 변수를 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배제에서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삶의 질에 대하여 조절 효과가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사회활동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26]은 체험중심 교육 전달 체계 개선과 미래 생활 역량 강화 등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통해 기존에 배제되었던 고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위한 고용지원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직무만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의 영향 관계를 약화시키는 완화효과(buffering effect)가 있다는 의미는 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직무만족이 고용상태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서 효과를 증가시키는 강화효과(enhancing effect)가 있다는 의미는 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증가할수록 고용상태에 따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직무만족이 사회활동과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서 반대의 효과를 발생하는 대립효과(interference effect)가 있다는 의미는 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증가할수록 사회활동에 따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직무만족은 삶의 질을 매개하고 하였고, 직무 적합성은 삶의 질을 조절한다고 하였다. [27]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수준 향상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고, 장애인의 직무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무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제도개선과 적성에 맞는 근무환경배치 등의 실천적 대안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억제하고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직무만족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의 직무만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실천적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은 단기적 접근으로서 현재의 의무 고용률을 유지하면서 의무 고용 이행률을 높이고 의무 고용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과 중장기적 접근으로서 의무 고용대상 인구를 확대하면서 의무 고용률(쿼터)을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부담금의 수준을 높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적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기업으로부터 징수되는 추가 부담금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즉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인프라 구축 등의 물적 지원과 근로 지원인 등 인적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자리의 질이 좋은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를 제고하는 차별적 조치와 함께, 의무 고용 적용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의 사례를 반영하여, 현재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의무 고용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하여 단계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넷째,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선 및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미래기술에 적합한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직무교육에서 벗어나 체험형 직무교육이 요구된다.

다섯째, 장애인 직업재활 기관과 연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진로 탐색 외에도 생애주기별 진로 탐색 및 직무교육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 장애인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실천적 대안과 정책적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고령화로 인하여 장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에 관련 없이 고용서비스 대상을 선별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개선과 의무 고용률 제고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더욱 진일보한 장애인의 차별을 완화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프로그램의 시행 배경, 시행내용, 성과, 한계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하길 바란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악순환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D.K.Kim and W.Lee,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ocial exclusion of disabled peopl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No.17, pp.129-147, 2012.
- [2] D.C.Yu, "Social Exclusion and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Focused on the Legislation Proces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3, No.1, pp.217-239, 2011.
- [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Survey on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5.
- [4]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16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6.
- [5] J.S.Lee,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oor Disabled Persons: Focus on Registration Disable Persons of Gwang-Ju City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Governance Society*, Vol.16, No.1, pp.79-105, 2009.
- [6] S.E.Lee,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27, pp.209-242, 2009.
- [7] A.D.Cast and P.J.Burke,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Vol.80, No.3, pp.1041-1068, 2002.
- [8] H.J.Cho, "A study on the Effect of Degree of Social Exclusion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People with Disabilities,"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Doctoral Thesis*, 2017.
- [9] J.J.Ryu and W.H.Na, "The Impac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and Labor Demand on Employment of the Disabled,"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0, No.1, pp.1-29, 2006.
- [10] M.S.Cho and S.W.Lee, "A Study on the Factors Determining Employment Statu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Vol.25, No.1, pp.57-83, 2011.
- [11] S.W.Lee and S.J.Hur, "A Study on Effects of the Property of Disability on Economic Activ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Vol.22, No.1, pp.113-135, 2012.
- [12] P.D.Mun and J.H.Lee, "The Effects of the Economic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Verification for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No.26, pp.173-192, 2014.
- [13] S.H.Park, C.Y.Kim and Y.J.Shin, "The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Changes on Mental Health,"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No.27, pp.79-120, 2009.
- [14] S.M.Lee,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level on the Quality of Life and Subjective Happiness: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Doctoral Thesis*, 2021.
- [15] J.S.Choi, Y.S.Kang and J.W.Kim, "The Effect of the Social Exclusion Level Against Underprivileged People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Inclusion," *Korean Social Welfare Survey Research*, Vol.21, pp.309-341, 2009.
- [16] K.C.Nam, "Social Exclusion and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Disability & Employment*, Vol.15, No.2, pp.121-142, 2005.
- [17] B.Gannon and B.Nolan, *The Dynamics of Disability and Social Inclusion*, The Equality Authority, 2006.
- [18] J.Y.Moon,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Exclusions Amongst France, UK and Swed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6, No.3, pp. 253-277, 2004.
- [19] H.O.Bae and Y.K.Kim,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29, No.2 pp.55-76, 2009.

- [20] H.J.Kang and Y.J.Kim, “Predictive Factors of Social Exclusion for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1, No.9, pp.323-334, 2011.
- [21] S.M.Park, “About The Social exclusion of Young people: In Terms of The Employment,” Unemployment, Irregular Labor,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13, No.3, pp.113-131, 2013.
- [22] D.K.Lim, “A Longitudinal Study on the Social Exclusion by Life Cycl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Doctoral Thesis, 2016.
- [23] S.J.Kim, “A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Social Exclusion, Stress in Family Life and Depression: Focus on the Comparison in Elderly Couple by Gender,”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019.
- [24] J.B.Park and Y.E.Beak,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Experienc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Wage-work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13, No.1, pp.34-60, 2022.
- [25] S.H.Roh,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Old-age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49, No.49, pp.5-30, 2020.
- [26] K.G.Han, W.H.Kim and Y.W.Lee, “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65, No.3, pp.105-140, 2022.
- [27] P.D.Mun and J.H.Lee, “The Effects of Wage Level on Life Satisfaction in Wage Earners Women with Disabilities: Verification for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Job-Fi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25, No.1, pp.59-83, 2015.

이 형 기(Heyongki Lee)

[정회원]



- 1999년 3월 : KOBE National University (법학박사)
- 2000년 1월 ~ 2000년 12월 : 법무부 전문위원
- 2001년 1월 ~ 2021년 2월 : 금융투자협회 연구위원
- 2021년 3월 ~ 현재 : 목포대학교 경영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관심 분야>

사물인터넷, 금융투자-운영, 기업지배구조, 핀테크, 금융관계법

권 애 란(Aeran Kwon)

[정회원]



- 2023년 8월 :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금융전공(경영학박사)
- 현재 : 목포대학교 박사

<관심분야>

사물인터넷, 장애인금융, 부동산금융, 서비스마케팅